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송광사 16국사전

송수권

모후산에서 나무 술개를 타고

국사전 뒷마당에 내려앉아

이곳 조계산 언덕 속에

돈오접수 조계종의 선맥을 뿌린

보조 지늘이여

그대 이름 아름답구나

우리 선바람 창창하구나

오늘 이곳에 들러 민대거리 스님들

꿀밤 한 대씩 먹이며

이 도량석에 석탑을 세우지 않고

왜 석등을 켜지 않은지

그 까닭을 알겠구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송수권 시인은... 1940년 전남 고흥 출생. 1975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산문에 기대어〉, 〈인 땅에 조선매화 한 그루를 심고〉 등.

2기 화쟁위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26일 2기 위원 위촉식... 위원장 도법 스님 재선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기 위원들을 위촉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화쟁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기 위원에는 호계원장 범등,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후,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일운 스님 등이 승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재가위원으로는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종민 前 검찰총장, 이남곡 논실마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2기 위원들은 위원장에 도법 스님을, 부위원장에 지홍 스님과 김동건 변호사를 선출했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위원회에는 원명 스님이 임명됐다.

화쟁위원회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첫 조계종 종단기구다. 2010년 6월 8일 출범한 화쟁위원회는 생명평화운동의 선구자 도법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최대 이슈였던 4대강과 불교계 갈등

현안인 불은사 직영사찰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

특히 4대강 문제 있어서는 첨예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정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민적 논거를 제안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화쟁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1기 사회 갈등 중도 해법 노력

결사본부 산하 기구 인식 벗어나 갈등 해결 위한 화쟁적 대안 필요

불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놓고 빚어진 갈등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2011년에는 남남갈등과 종교평화를 의제로 삼고 종교평화선언,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쌍용차 해고근로자, 한진중공업,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은 위원장 도법 스님이 직접 발로 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으로 명명된 종교평화선언은 초안을 작성해 기자회견까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6일 화쟁위원회 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열었지만, 불교계 내부 반발로 현재까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추진 사업들의 성과는 갈리지만, 불교종단이 직접 사회 갈등을 다루는 기구를 만들고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1, 2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안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등안시 했던 사회 문제를 종단 차원으로 다루고 해법을 모색하려 한 것은 성과”라며 “갈등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노력하려 해도 사회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벽이 너무 단단하다. 이를 넘을 수 있는 화쟁적 대안 창출이 2기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인력 구조 변화와 종단 내

중립성 확립은 화쟁위원회가 넘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6월 결사추진본부로 편입되며 화쟁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들이 교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종단 내부로 들어감으로서 인력 구조와 기구의 중립성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쟁위원 성태용 교수는 “결사추진본부로 화쟁위원회가 편입되면서 중립성의 한계성을 가지게 됐고 인력 운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이런 내부적 쇄신과 함께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불광심인당 진언행자 25명 새 출발

진각종 12년만에 LA서 수계관정불사

진각종은 7월 22일 미국 LA 불광심인당(주교 관중 정사)에 개설된 삼매아카데미에서 미국 신교도 대상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12년 만에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는 25명의 신교도가 보살심선계를 받고 진언행자로 태어났다.

증명 아사리 성초 총인을 비롯해 해명 정사, 효운 정사 등이 계사로 참여한 이번 불사에는 계제이운을 시작으로 현화, 설계단문, 천계, 삼귀명, 수계자 대표 현화, 성취계제, 설계상, 관정 및 가지, 입지계, 범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미국 LA 불광심인당서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 25명이 아사리 정사들로부터 계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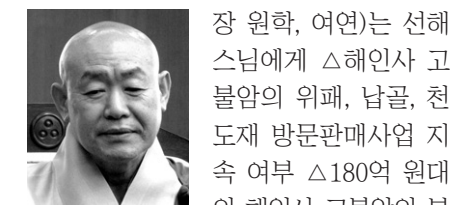
해인사 26대 주지 선해 스님 취임

25일 종무 인수인계... 정상화위, 유착관계 해명 촉구

해인사 26대 신임 주지에 선해 스님(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7월 25일 오전 총무원 총무부, 재무부의 참석 하에 종무 인수 인계를 받았다. 선해 스님은 인수 인계 이후 방장 법전 스님을 예방하고 취임 인사사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



장 원학, 여연)은 선해 스님에게 △해인사 고불암의 위폐, 납골, 천도재 방문판매사업 지속 여부 △180억 원대의 해인사 고불암의 부채 정리 방안 △선각 스님과 주위 측근들과의 친소 관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쌍계사·고운사

8월 28일 보궐선거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와 제16교구 고운사가 8월 28일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8일 공고했다. 쌍계사는 원정스님의 사직으로, 고운사는 지현

스님의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으로 각각 결석이 된 상태다.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이며 두 교구 모두 입후보자 등록은 8월 14-16일,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3일까지다. 쌍계사는 8월 28일 오후 1시 설선당에서, 고운사도 선체험관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한다.



(사)여래불교조계종 창종을 제방에 고합니다



제13세 종정예하
무여당 현산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는 제방의 청정승가와 돈독한 불심으로 삼보호지에 앞장서는 불제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기원하오며 여래불교 조계종 창종을 감히 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혼탁한 환경을 정화하고자 정도수행, 정법포교, 평화불교를 외치고자 무여당 현산 큰스님을 초대 종정으로 받들고 어린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래불교조계종에 사부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증흥에 앞장서는 종단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래불교조계종의 중지종풍에 함께하실 중도님들을 모십니다.

- 종 회 의 장 혜견 총 무 원 장 현산
- 사 무 총 장 자운 감 찰 원 장 법성
- 중앙교육원장 중무 문 화 원 장 향지
- 표 교 원 장 만경

여래불교조계종 중도일동

입 증 안 내

구비서류 : 종단 가입신청서, 사찰등록 신청서, 반명함 사진 3매, 주민등록증 사본(앞, 뒤)

※ 금년 입증 중도에 한하여 입증비 일체를 면제합니다.

(사)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02)2282-5830 (팩스 검용)